

靑橋 安錫傲의 詩經論과 『詩經』 해설 방법의 특징

楊 沅 錫*

<目次>

- | | |
|---------------------|------------------|
| I. 서론 | V. 修辭學的 方法을 활용한 |
| II. 經典과 文章에 대한 인식 | 經文 해설 |
| III. 『識聞詩傳』의 구성과 내용 | VI. 결론 |
| IV. 詩經論 | |

<국문 초록>

본고는 靑橋 安錫傲의 『識聞·詩傳』에 대한 검토를 통해 靑橋 詩經論의 주요 내용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먼저 靑橋의 經典과 文章에 대한 인식 및 『識聞·詩傳』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朱子 註 존승과 朱子 淫詩說 긍정 등의 詩經論을 확인하였고, 또한 經文 해설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識聞·詩傳』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시경』 주해서라고 그 성격을 정리하였다.

靑橋는 『識聞·詩傳』에서 朱子 註 외의 다른 주석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주자의 주석 특히 『詩集傳』을 인용하거나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삼교는 주자의 주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朱子의 註를 ‘聖譯’이라고 칭하는 등 그것을 매우 존승하는 입장이었다.

靑橋는 朱子의 淫詩說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자가 음시라고 판정한 상당 수 시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음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 yang1st@empas.com

시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삼교는 음시 판정의 문제 보다는 시편의 문장 수사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識聞·詩傳』에서 볼 수 있는 經文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藝學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 ‘篇章의 수사학’과 ‘字句의 수사학’을 『識聞·詩傳』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識聞·詩傳』은 일반적인 경학 저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경학사에서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雪橋, 安錫傲, 『識聞』, 『詩經』, 詩經論, 修辭學의 方法論

I. 서론

본고는 雪橋 安錫傲(1718~1774)이 『詩經』에 대한 견해와 해석을 제시한 자료인 『識聞·詩傳』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雪橋의 詩經論과 그의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雪橋는 문장 修辭學의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시·산문·한문단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던 문학가이다. 이러한 성취로 인해 삼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¹⁾ 기

1) 이명학, 「『雪橋漫錄』 연구: 漢文短篇 作家 및 作家意識에 대한 一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정우봉, 「『삼교예학록』에 나타난 한시비평론」, 『한문교육연구』 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정우봉, 「『삼교예학록』의 산문 수사학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정우봉, 「18세기 중반 韓國修辭學史의 한 국면 - 安錫傲의 『삼교예학록』과 『삼교지문』을 중심으로」, 『수사학』 창간호, 한국수사학회, 2004.; 김근태,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28, 태학사, 2004.;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金剛山 遊記」,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문장관과 비평의 실제-牧隱·簡易·谿谷의 散文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윤지훈, 「18세기 筆記의 一樣相 考察-

존에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성과는 삼교의 문학 및 수사학의 특징을 해당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삼교의 문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삼교는 『雪橋集』·『雪橋漫錄』·『雪橋藝學錄』 등의 문학 관련 저술을 남겼을 뿐 아니라, 四書三經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견해를 제시한 『雪橋識聞』을 남겼다. 그러나 『識聞』은 삼교의 다른 저술과 달리 뒤늦게 2002년에서야 학계에 공개되었고, 또 경서 관련 내용을 수록함에 따라 문학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즉 『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우봉이 『지문』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래,²⁾ 윤지훈은 『지문』의 편찬 배경과 체재 및 경전 해석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³⁾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지문』 가운데 특히 『詩傳』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삼교의 詩經論과 그의 『시경』 해설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시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문』에서 언급한 총 453개 조목 가운데 『시전』에 관한 조목이 가장 많다는 점, 문학가인 삼교가 여러 경서 가운데 중국 最古의 詩歌集인 『시경』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조선 후기 경학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從朱와 反朱의 해석 경향이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서가 『시경』이라는 점 때문이다.

삼교는 그동안 문학가이자 수사학에 대한 성과를 이룩한 학자로 주로

『雪橋漫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윤지훈, 「『삼교예학록』을 통해 본 안석경의 산문 비평과 고문 작법-편장구성과 자구운용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2) 정우봉, 위의 논문, 2003.; 정우봉, 위의 논문, 2004.

3)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조명되었지만, 그의 경학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의 『지문·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삼교의 경전 해석의 특징과 경학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의 학문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삼교가 가졌던 經典과 文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삼교의 저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에 『識聞·詩傳』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다음으로는 역대 詩經學史의 주요 쟁점 몇 가지에 대한 삼교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詩經論을 정리하고, 아울러 그의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雪橋 詩經論의 意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II. 經典과 文章에 대한 인식

본고는 雪橋 安錫徹의 經學, 그 중에서도 『詩經』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장에서는 삼교가 經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文章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삼교는 조선시대의 여느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전 공부에 열중하였던 인물이었다. 成海應은 「世好錄」에서 삼교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六經 읽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으며,⁴⁾ 삼교의 從弟 安錫任도 삼교가 어릴 때부터 경서 읽기를 열심히 하였다고 하였다.⁵⁾

4)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49, 「世好錄」, “安公錫徹字叔華號雪橋, 順興人, 父諱重觀, 以文學名, 仕止郡守. 公早承家訓, 而才又粹美, 聰明過人. 好讀六經及諸子, 讀書禪房者, 殆數十年, 浩博無涯, 而不事舉子業. 力追古文, 嘗挈家室隱於卓異山中, 林壑孤絕, 不與世相聞, 躬耕以自給.”

5) 安錫任, 『雪橋別集』, 「雪橋別集序」, “自少隨讀經若子, 而輒識其所嘗聞, 又於古今文藝之學, 聞見甚博.”

또한 삼교와 교유하였던 인물인 成大中은 『靑城雜記』에서 삼교가 경전과 문장에 대한 생각을 밝힌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叔華⁶⁾ 安錫傲이 遲齋 金焮 선생에게 가서 유숙한 적이 있었는데, 金氏 집안의 젊은이 중에 叔華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는 자가 있었다. “가세가 기울어 부득이 과거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科文에만 국한하는 것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經術과 文章으로 스스로 궁지를 가지고자 하는데, 선생께서 저의 재주를 헤아려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叔華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文章을 하찮게 여기는가? 도덕이 비록 높고 功業이 훌륭하더라도 문장이 아니면 이를 전할 수 없다. 문장도 하찮게 여길 수 없는데 하물며 經術로 빛을 더한다면야 더 말할 게 무엇이겠나.” … 叔華가 말했다. “문장이라는 것은 천하의 모든 일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하나라도 통달하지 못함이 있으면 지극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책들을 섭렵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해야 하고, 스무 살 이후에는 시대에 적합하고 쓰임에 긴요한 것들을 택해 그것을 요약하여 글을 써야 하고, 사오십이 되어서야 좋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네. 지금 자네는 나이가 스물다섯인데 諸家의 여러 책 중 하나라도 본 것이 없으니, 이보다 더한 것은 알 만하네. 설사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해도 어느 거름에 그 내용을 통달하고 그 깊은 뜻을 밝히겠는가. 더구나 또 과문 공부는 전념하는데 방해가 되네. 經術은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문장은 어렵겠네. 자네가 이미 七經을 읽었으니, 『朱子大全』·『資治通鑑綱目』·『自警編』을 숙독한다면 충분히 당대의 이름난 석학이 될 수 있을 것이네.”⁷⁾

6) 叔華: 安錫傲의 字

7) 成大中, 『靑城雜記』 卷4, 「醒言」, “安叔華錫傲, 嘗詣遲齋金先生宿, 金氏少年, 有請於叔華者曰: ‘家世衰替, 不得不致力科第, 而畫於功令, 意實恥之. 思以經術文章自持, 先生度某之才, 能之乎.’ 叔華笑曰: ‘君少文章耶. 道德雖尊, 事功雖偉, 然非文章則莫傳, 徒文亦未可少也, 況飾之以經術耶.’ … 叔華曰: ‘文章者, 於天下事, 無不通也, 一有不通, 非其至者也. 然其涉獵群書, 常在其少弱時, 二十以後, 則擇其合於時而切於用者, 約之成書, 至四五十而章成焉. 今君年二十有五矣, 百家諸書, 無一覽焉, 進乎此者可知. 縱今始學, 顧何暇通其情而發其奧哉. 況又功令之文, 害其專矣. 經術尚可, 文章則未也. 君既讀七經矣, 熟看朱子大全, 資治綱目及自警編, 則亦足爲今世之名碩也.’”

이상은 삼교가 遲齋 金煥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金煥 집안의 젊은이가 경전과 문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삼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에 대해 삼교가 그 젊은이에게 대답해 준 내용이다.

삼교는 먼저 문장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장은 어떠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높은 도덕이나 훌륭한 功業 같은 것들도 문장을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문장을 잘 지을 수 있고 또 經術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좋은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서적을 읽고 천하의 모든 일에 두루 통달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어렸을 때에 여러 책들을 섭렵하고, 스무 살 이후에는 시대에 적합하고 쓰임에 긴요한 것들을 택해 읽으면서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오십이 되어서 좋은 문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장을 잘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교는 그 젊은이에게 “經術은 가능할 수 있지만 文章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경전과 문장 모두 중요하지만 문장을 잘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공부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成大中이 “雪橋의 이 말은 문장의 大道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⁸⁾라고 평했듯이, 이 일화는 삼교의 경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장의 道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전과 문장에 대한 삼교의 인식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삼교는 문장과 경전 모두 중요한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굳이 兩者를 비교하자면 문장이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공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삼교의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도 경전과 문장에 대한 삼교의 인식을 정리한 내용이

8) 成大中, 『青城雜記』 卷4, 「醒言」, “… 叔華此言, 眞得文章之大道.”

있다. 윤지훈은 “삼교는 평소 산문의 기본 문체와 구성은 경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문장을 학습할 때에도 경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문장 학습의 단계를 ‘經書→唐宋古文→秦漢古文’의 순으로 상정하고 각 단계별 체계적인 학습을 주장하였다. 삼교에게 경전이란 심성 수양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과 동시에 문장 학습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졌다.”⁹⁾라고 하였다.

요컨대, 삼교는 어려서부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중시하였지만, 경전은 문장을 잘 짓기 위해 필요한 공부의 과정이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가 남긴 저술에 수사학적 분석 및 문장 작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詩文에 대한 批評을 진행하였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전과 문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삼교가 四書三經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담은 『雪橋識聞』을 저술했음을 통해, 그가 경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III. 『識聞·詩傳』의 구성과 내용

『識聞·詩傳』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雪橋의 저술 및 『識聞』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아래와 같다.

삼교의 저술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雪橋集』은 그의 詩文을 모은 것이고, 『雪橋漫錄』은 다양한 방면의 사실·견문·일화들을 모은 것이며, 『雪橋藝學錄』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詩文 작품을 비평한 것이고, 『雪橋識聞』은 경전을 풀이하고 분석한 것이다.¹⁰⁾ 이 중에서 『雪橋漫錄』·『雪

9)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p.344-345.

10) 정우봉, 앞의 논문, p.165.

『雪橋學錄』·『雪橋識聞』은 『雪橋別集』에 포함되어 있다.

『雪橋集』은 東洋文庫本과 奎章閣本 두 종이 전해지고 있다. 東洋文庫本¹¹⁾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원본 확인이 가능하며, 1986년 아세아문화사에서 栖碧外史海外蒐佚本 5~7책으로 영인하였다. 奎章閣本¹²⁾은 한국문집총간 233책 및 아세아문화사본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雪橋別集』 가운데 『漫錄』¹³⁾과 『藝學錄』은 東洋文庫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영인한 아세아문화사본에도 수록되어 있고, 2002년 토우출판사에서 삼교 집안의 家藏本을 영인한 『筆寫本 雪橋別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識聞』은 동양문고본과 아세아문화사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토우출판사에 영인한 『筆寫本 雪橋別集』에서만 볼 수 있다.

『지문』은 『大學』·『論語』·『中庸』·『詩傳』·『書傳』·『周易』에 대한 삼교의 해석과 견해 등을 수록한 것이다. 四書三經 가운데 『孟子』만 누락되어 있는데, 원래 『맹자』에 대한 내용도 집필하였지만 『맹자』와 관련된 내용만 후대에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經書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 수록하고 그 책의 이름을 『識聞』이라 칭하였는데, 『識聞』은 삼교가 그의 부친 安重觀으로부터 ‘들은 바[聞]를 기록하다[識]’라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¹⁴⁾ 즉 삼교는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경서 관련 내용에 대해 듣고 배운 바를 기록하고 또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지문』을 완성하였던 것이다.¹⁵⁾

『지문』의 편찬배경과 體裁에 대해서는 윤지훈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

11) 不分卷 五冊 筆寫本

12) 雪橋의 外玄孫 李種元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刪定·編次한 것을 從五代孫 鍾弼, 鍾學 등이 1906년에 활자로 印行한 初刊本

13)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는 『漫錄』을 『雪橋別集』이라는 제목으로 두었다.

14) 安錫任, 『雪橋別集』, 『雪橋別集序』, “自少隨讀經若子, 而輒識其所嘗聞.”

15)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343.

다. 윤지훈은 부친 안중환의 저술 의식 및 경전을 문장 학습에 활용하려는 삼교의 인식을 『지문』 편찬의 배경이라고 하였으며, 『지문』의 텍스트별 조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¹⁶⁾

대상	조목 수	비고
大學	21	初本
	54	再本
論語	47	初本
	106	再本
中庸	39	缺落
詩傳	159	
書傳	7	
周易	20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문』은 각 경서에 대해 총 453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詩經』이나 『書經』·『尙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詩傳』과 『書傳』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전』은 朱子の 『시경』 주해서의 명칭이며, 『서전』은 주자의 제자인 蔡沈이 지은 『서경』 주해서의 명칭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되었고 또 후술할 내용이지만 삼교는 주자의 주와 그 해석을 존중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입장은 『시전』과 『서전』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지문』 가운데 『시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지문·시전』에서 삼교가 자신의 해석과 견해를 제시한 시편과 그렇지 않은 시편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윤지훈, 「書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p.341-347.

		『識聞·詩傳』에 있는 시편	『識聞·詩傳』에 없는 시편
國風	周南	關雎, 葛覃, 卷耳, 樛木, 蟋蟀, 桃夭, 芣苢, 漢廣, 汝墳	麟之趾
	召南	鵲巢, 采芣, 采蘋, 甘棠, 行露, 羔羊, 標有梅, 小星, 江有汜, 野有死麕, 何彼禮矣	草蟲, 殷其雷, 騶虞
	邶風	柏舟, 綠衣, 燕燕, 日月, 終風, 擊鼓, 凱風, 雄雉, 匏有苦葉, 谷風, 式微, 旄丘, 邶風, 簡兮, 泉水, 北門, 北風, 靜女, 新臺, 二子乘舟	
	鄘風	柏舟, 牆有茨, 君子偕老, 桑中, 鶉之奔奔, 定之方中, 蟋蟀, 相鼠, 干旄, 載馳	
	衛風	淇奧, 考槃, 碩人, 氓, 竹竿, 芄蘭, 河廣, 伯兮, 有狐, 木瓜	
	王風	黍離, 君子于役, 揚之水, 中谷有蓷, 葛藟, 采芣, 大車, 丘中有麻	君子陽陽, 免爰.
	鄭風	緇衣, 將仲子, 叔于田, 大叔于田, 清人, 有女同車, 風雨, 溱洧	羔裘, 遵大路, 女曰雞鳴, 山有扶蘇, 蘄兮, 狡童, 褰裳, 丰, 東門之墀, 子衿, 揚之水, 出其東門, 野有蔓草
	齊風	雞鳴, 還, 南山, 盧令, 敝笱, 載驅, 猗嗟	著, 東方之日, 東方未明, 甫田
	魏風	葛屨, 汾沮洳, 陟岵, 伐檀, 碩鼠	園有桃, 十畝之間
	唐風	蟋蟀, 杕杜, 鶉羽	山有樞, 揚之水, 椒聊, 綢繆, 羔裘, 無衣, 有杕之杜, 葛生, 采芣
	秦風	小戎, 蒹葭, 晨風, 無衣, 權輿	車鄰, 駟驥, 終南, 黃鳥, 渭陽
	陳風	株林, 澤陂	宛丘, 東門之枌, 衡門, 東門之池, 東門之楊, 墓門, 防有鵲巢, 月出
	檜風	素冠, 匪風	羔裘, 隰有萋楚
	曹風	候人, 鳩鳴	蜉蝣, 下泉
豳風	七月, 鸛鳴, 東山, 破斧	伐柯, 九罭, 狼跋	

	『識聞·詩傳』에 있는 시편	『識聞·詩傳』에 없는 시편
小雅	鹿鳴, 四牡, 伐木, 天保, 采芾, 湛露, 六月, 祈父, 白駒, 黃鳥, 我行其野, 斯干, 無羊, 節南山, 十月之交, 雨無正, 小旻, 小宛, 小弁, 巧言, 何人斯, 巷伯, 谷風, 四月, 無將大車, 小明, 鼓鍾, 甫田, 裳裳者華, 桑扈, 角弓, 菀柳, 黍苗, 白華, 瓠葉, 苕之華	좌측 시편 외 44편
大雅	文王, 緜, 旱麓, 思齊, 下武	좌측 시편 외 25편
頌		頌 39편 전체

이상에서 『지문·시전』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수 있다. 「國風」이 전체의 약 3/4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大雅」는 극히 일부의 시편(5편)만 다루고 있고, 「頌」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편도 언급하지 않았다.

삼교는 민간 가요라고 할 수 있으면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 내용이 다수 있는 「國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가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경직된 느낌을 주는 「雅」·「頌」보다는 「國風」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頌」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편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國風」 가운데에서 「鄭風」·「唐風」·「陳風」의 경우 삼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시편보다 아예 다루지 않은 시편이 더 많이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겠지만, 혹 남녀의 연애 내용이 많이 나오는 「鄭風」과 「陳風」의 시편들을 삼교가 꺼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할 수 있겠다.

IV. 詩經論

1. 朱子 註 존송

『識聞·詩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삼교가 『詩經』에 대한 해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朱子の 註를 특히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의 내용에서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周南·關雎」朱子の 傳은 비록 상세히 다 갖추어졌지만 한편으로 너무 간단한 면이 있다. 지금 주자의 뜻에 근거하여 그 부차적인 뜻을 미루어 제시하겠다.¹⁷⁾

「二南」에 대한 朱子の 註解는 그 높고 깊음을 지극히 하였고 그 상세한 것까지 다하였으니, 詩人의 마음과 編次의 뜻이 하나라도 소홀이 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을 읽는 자는 모름지기 마음을 넓고 크게 열고 시야를 높고 멀리 두며 뜻을 정밀하게 하여 한 구절과 한 글자라도 대충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周南」의 끝부분과 「召南」의 가운데 부분에 “南國이 文王의 교화를 입었다”라고 매번 말하면서 중복함을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들이 대충 보고 지나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¹⁸⁾

「關雎」에서 삼교는 朱子の 傳이 이미 상세히 갖추어졌다고 하였으며, 또 주자가 주석을 달았던 뜻에 근거하면서 주자 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차적인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해석이나 다른 주

17) 『識聞·詩傳』, p.658, “周南, 關雎. 朱子傳雖詳悉, 而顧甚簡, 今因其意而推其旁旨.” (『識聞·詩傳』에 제시한 면수는 토우출판사의 『筆寫本 雪橋別集 三』을 기준으로 한 것임.)

18) 『識聞·詩傳』, pp.671-672, “朱子於二南註解, 極其高深, 盡其纖微, 而詩人之情, 編次之意, 無一毫遺忽差錯. 讀之者, 須開懷廣大, 着眼高遠, 用意精密, 雖一句一字, 不可汎過. 周南之末, 召南之中, 每言南國被文王之化, 而不厭重複, 蓋恐人之汎看也.”

석을 참고하기 보다는 주자의 주석을 중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二南」에 대한 朱子의 註解는 그 높고 깊음을 지극히 하였고 그 상세한 것까지 다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자의 주해로 인해 시를 쓴 詩人의 마음과 시를 엮은 編次의 뜻이 하나라도 소홀이 되거나 잘못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삼교는 『시경』에 대한 주자의 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삼교는 朱子 註를 ‘聖譯’¹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²⁰⁾

『지문·시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註’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註는 바로 『詩集傳』에서 제시한 주자의 주석이다. 삼교는 『시경』 해석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毛詩鄭箋』의 해석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직 주자의 주석을 인용하거나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였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桃夭」의 朱子 註에 이른바 ‘華之盛[꽃이 무성함]’, ‘實之盛[열매가 무성함]’, ‘葉之盛[잎이 무성함]’이라는 것은 男女以正[바름으로써 남녀가 사귀] 및 婚姻以時[제 때에 혼인함]와 서로 發映한다.²¹⁾

19) 『識聞·論語再本』, “篤信好學章, 朱子只就不入不居字而說出, 義理之正, 去就之宜如此, 可謂聖譯矣.”; 『識聞·易』, “余曰, 此朱子之所以爲朱子也. 竊觀朱子註釋經子也, 未嘗爲穿鑿傳會崎嶇之說, 其不能十分洞曉而的當無疑者, 皆以未詳言之, 不欲有一毫誤人之端, 眞所謂聖譯, 而所以爲命世之大賢也歟.”

20) 윤지훈은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p.347-354.에서 雪橋가 주자 주에 의거하여 경전 해석을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이상은 윤지훈의 선행 연구 성과를 인용 및 참고하여 서술한 것이다.

21) 『識聞·詩傳』, p.662, “桃夭註所謂華之盛·實之盛·葉之盛者, 蓋與男女以正, 婚姻以時者, 相發映.”

‘華之盛’, ‘實之盛’, ‘葉之盛’은 각각 「桃夭」의 경문에 있는 ‘灼灼其華’, ‘有蕢其實’, ‘其葉蓁蓁’에 대한 주자의 주석이다.²²⁾ 즉 주자는 ‘灼灼’에 대해 ‘華之盛’, ‘蕢’에 대해 ‘實之盛’, ‘蓁蓁’에 대해 ‘葉之盛’이라고 풀이하었는데, 삼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주석이 ‘男女以正’·‘婚姻以時’와 서로 호응한다고 하였다.

「免置」의 ‘肅肅’ 두 글자는 힘을 쓴 곳이니, 朱子 註에서 ‘整飭貌(정돈된 모양)’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²³⁾

「免置」의 경문 “肅肅免置, 椽之丁丁.”에 대해 주자는 “肅肅, 整飭貌.”이라고 주석을 달았다.²⁴⁾ 삼교는 이 시편에서 ‘肅肅’이라는 두 글자가 시인이 중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주자가 ‘整飭貌’라고 주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하였다.

「漢廣」의 ‘喬木’에 대한 朱子 註는 ‘上竦無枝(위로 쪽 뻗어 올라가고 가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매우 적절하다. ‘喬木’과 ‘錯薪’은 비록 興이지만 실제로는 比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²⁵⁾

「漢廣」의 경문 “南有喬木, 不可休息.”의 ‘喬木’에 대해 주자는 “上竦無枝”라고 주석하였으며, 또한 1절을 “興而比”라고 하였다.²⁶⁾ 삼교는 주자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또한 주자 주석의 ‘興而比’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하였다.

22) 『詩集傳』, 「周南·桃夭」, “灼灼, 華之盛. … 蕢, 實之盛. … 蓁蓁, 葉之盛. … 文王之化, 自家而國, 男女以正, 婚姻以時, …”

23) 『識聞·詩傳』, p.664, “免置. 肅肅二字爲用力之處, 註云整飭貌, 得之矣.”

24) 『詩集傳』, 「周南·免置」, “肅肅, 整飭貌.”

25) 『識聞·詩傳』, p.665, “漢廣, 喬木註上竦無枝云者, 切當. 喬木錯薪, 雖興而實含比意.”

26) 『詩集傳』, 「周南·漢廣」, “興而比也. 上竦無枝曰喬.”

「召南·鵲巢」의 朱子 註에 ‘鵲善爲巢完固, 鳩性拙.[까치는 둥지를 잘 만들어 견고하고, 비둘기는 성질이 졸렬하다.]’라고 한 것은 시인이 제후와 부인의 덕을 영탄한 뜻을 모두 잘 얻은 것이다.²⁷⁾

「召南·鵲巢」의 경문 “維鵲有巢, 維鳩居之.”에 대해 주자는 “鵲·鳩, 皆鳥名. 鵲善爲巢, 其巢最爲完固, 鳩性拙, 不能爲巢, 或有居鵲之成巢者. [鵲(까치)과 鳩(비둘기)는 모두 새의 이름이다. 까치는 둥지를 잘 만들었는데 그 둥지가 가장 견고하였다. 비둘기는 성품이 졸렬하여 둥지를 잘 만들지 못하였는데 간혹 까치가 만든 둥지에 살기도 하였다.]”라고 주석하였다.²⁸⁾ 이 주석에 대해 삼고는 ‘시인이 제후와 부인의 덕을 영탄한 뜻을 모두 잘 얻은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주자의 주석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衛風·淇奥」의 朱子 註에 ‘德之修飭, 有進無已.[덕의 수양과 삼가는 것이 나아감이 있고 그만 됨이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앎과 행동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²⁹⁾

「衛風·淇奥」의 경문 “如切如磋, 如琢如磨.”에 대해 주자는 “治骨角者, 既切以刀斧, 而復磋以鑿錫, 治玉者, 既琢以槌鑿, 而復磨以沙石, 言其德之修飭, 有進而無已也.[뼈와 뿔을 다루는 자가 이미 칼과 도끼로 잘라놓고 다시 줄과 대패로 갈며, 옥을 다루는 자가 이미 망치와 끌로 쪼아 놓고 다시 모래와 돌로 가니, 이는 德의 수양과 삼감이 나아감이 있고 그만 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주석하였다.³⁰⁾ 이러한 주자의 주석에 대

27) 『識聞·詩傳』, p.666, “召南鵲巢註, 鵲善爲巢完固, 鳩性拙云者, 皆得詩人詠歎諸侯及夫人之德之意矣.”

28) 『詩集傳』, 「召南·鵲巢」, “鵲鳩, 皆鳥名. 鵲善爲巢, 其巢最爲完固, 鳩性拙, 不能爲巢, 或有居鵲之成巢者. … 諸侯之子, 嫁於諸侯, 送御皆百兩也.”

29) 『識聞·詩傳』, p.689, “衛淇奥註, 德之修飭, 有進無已, 包知行而言也.”

30) 『詩集傳』, 「衛風·淇奥」, “治骨角者, 既切以刀斧, 而復磋以鑿錫, 治玉者, 既琢以槌鑿, 而復磨以沙石, 言其德之修飭, 有進而無已也.”

해 삼교는 앎과 행동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라는 평을 달았다.

이상에서 『지문·시전』에서 ‘註’라고 제시된 부분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삼교가 언급한 ‘註’는 모두 주자의 주석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시경』의 해석에는 다양한 주석이 있는데 특히 『毛詩鄭箋』이 18세기 조선 학계에서 많이 참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교가 언급한 註는 오직 주자 『시집전』의 주석이었다.³¹⁾ 또 삼교는 『시집전』의 주석을 인용하고서는 그 주석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을 하거나 그 주석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삼교가 『시경』 해석에서 주자의 주를 절대적으로 존송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교가 활동하였던 18세기는 경전 해석에서 주자의 주석이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자 주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학자들이 다수 등장하고 『모시정전』 등의 다양한 주석과 해석을 받아들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교가 주자 주석만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주자 주석을 특히 존송한 점은 그가 『시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淫詩說 긍정

朱子가 『詩經』에서 淫詩라고 판정한 시편은 『시경』 305편 가운데 그 해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음시에 대한 해석과 견해는 漢代와 宋代 시경학의 분기를 가르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였다. 즉 주자가 판정한 음시 시편에 대해, 漢代の 『毛詩鄭箋』에서는

31) 『詩經』에 대한 주자의 주석으로는 『詩集傳』 외에도 『詩序辨說』, 『朱子語類』, 『詩傳遺說』이 있다. 특히 『詩序辨說』과 『朱子語類』는 주자의 만년 定說이 수록된 것이다. 雪橋는 주자의 주석을 인용할 때에 『시집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詩序辨說』과 『朱子語類』는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 이 또한 雪橋가 『시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美刺의 관점에 근거하여 정치 풍자의 내용을 담은 諷刺詩라고 하였다. 반면 宋代의 朱子는 자신의 性情論 및 윤리도덕관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성이 상실된 민간의 소인배가 지은 음란한 내용을 담은 시편을 ‘淫詩’라고 판정하여 漢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 주류가 되었던 毛鄭의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³²⁾ 이후 淫詩 시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은 ‘存序와 廢序’, ‘從序와 從朱’, ‘漢學과 宋學’의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시경학의 가장 쟁점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朱子の 淫詩說 주장은 주자 시경론의 핵심으로써, 그의 ‘反詩序’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또 國風을 民間歌謠라고 보는 그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의 『시경』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자가 음시라고 판정한 시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詩序 혹은 주자 해석에 대한 입장과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주자가 『시경』 305편 가운데 淫詩라고 판정한 30편³³⁾에 대해, 書橋가 어떠한 해석을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주자 음시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⁴⁾

32) 이재훈,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245.

33) 朱子가 판정한 淫詩의 篇目과 篇數에 대한 역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元의 馬端臨은 『文獻通考』에서 24편으로 보았고, 현대 학자인 何定生은 『詩經今論』에서 27편으로 보았으며, 程元敏은 『王柏之生平與學術』에서 29편으로 보았고, 이재훈은 30편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재훈, 위의 논문, pp.276-289.에서 제시한 견해를 따라 음시를 30편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그 30편은 다음과 같다. (「邶風·靜女」, 「鄘風·桑中」, 「衛風·氓」, 「衛風·有狐」, 「衛風·木瓜」, 「王風·采葛」, 「王風·大車」, 「王風·丘中有麻」, 「鄭風·將仲子」, 「鄭風·叔于田」, 「鄭風·遵大路」, 「鄭風·有女同車」, 「鄭風·山有扶蘇」, 「鄭風·蘼兮」, 「鄭風·狡童」, 「鄭風·褻裳」, 「鄭風·丰」, 「鄭風·東門之墠」, 「鄭風·風雨」, 「鄭風·子衿」, 「鄭風·揚之水」, 「鄭風·野有蔓草」, 「鄭風·溱洧」, 「齊風·東方之日」, 「陳風·東門之枌」, 「陳風·東門之池」, 「陳風·東門之楊」, 「陳風·防有鵲巢」, 「陳風·月出」, 「陳風·澤陂」)

「邶風·靜女」

- 朱子: 이것은 淫奔者가 만날 것을 기약한 시이다.³⁵⁾
- 雪橋: 彤管을 기뻐하고 牧蕘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을 음란하게 하고 놓아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부자형제의 사이나 군신과 친구의 사이에 반드시 漠然하면서도 상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 서글퍼할만하다.³⁶⁾

「鄘風·桑中」

- 朱子: 衛나라의 풍속이 음란하여 세족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서로 妻妾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장차 沫땅에서 새삼을 캐면서 그리워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만나기를 약속하며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³⁷⁾
- 雪橋: 말의 뜻이 음란하고 음절이 放縱하다. ‘桑中’·‘上宮’·‘淇之上’은 3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음탕한 뜻이 말 밖에 넘쳐난다. 한 사람이 세 여인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송함을 동일한 장소에서 했던지, 세 사람이 세 여인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송함을 동일한 장소에서 했던지 간에 음란한 풍속이 아주 심하다고 이를 만하다. 「靜女」 다음에 新臺가 있는 것은 아래에 음란한 풍속이 있어 점점 위로 스며드는 것이며, 「君子偕老」 다음에 「桑中」이 있는 것은 위에서 음란한 풍습을 지극히 하여 아래에도 성하게 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서로 분트며 그 악함을 다하였으니, 비록 중화의 문명이 있었지만 오랑캐

34) 주자가 淫詩라고 판정한 30편 중, 雪橋는 다음 16편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과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래 시편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鄭風·遵大路」, 「鄭風·山有扶蘇」, 「鄭風·蘼兮」, 「鄭風·狡童」, 「鄭風·褻裳」, 「鄭風·丰」, 「鄭風·東門之墀」, 「鄭風·子衿」, 「鄭風·揚之水」, 「鄭風·野有蔓草」, 「齊風·東方之日」, 「陳風·東門之枌」, 「陳風·東門之池」, 「陳風·東門之楊」, 「陳風·防有鵲巢」, 「陳風·月出」)

35) 『詩集傳』, “此淫奔期會之詩也.”

36) 『識聞·詩傳』, p.684, “說彤管而美牧蕘, 淫放其心 至於如此極, 則其於父子兄弟之間, 君臣朋友之際, 必漠然, 不相關矣. 嗚呼, 其可哀也哉.”

37) 『詩集傳』, “衛俗淫亂, 世族在位, 相竊妻妾. 故此人自言, ‘將采唐於沫, 而與其所思之人, 相期會迎送, 如此也.’”

로 변하게 되었고, 物類가 서로 감응하여 오랑캐의 禍를 부른 것이다. 「靜女」는 악을 행하는 시작이었지만 오히려 위에 꺼리는 바가 있었으니 그래서 ‘城隅’와 ‘跼蹐’는 속이고 숨기는 것을 나타내었다. 桑中」은 위아래가 서로 악행을 조장하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桑中’과 ‘淇上’에서 방탕함을 지극히 하였다.³⁸⁾

「衛風·氓」

- 朱子: 이것은 淫婦가 남자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그 일을 서술하며, 그 회한의 뜻을 말한 것이다. … 士君子가 몸을 세움에 한번 어긋나면 만사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리오?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⁹⁾
- 雪橋: 1장과 2장은 남자를 맞아서 좋아하게 된 일을 서술한 것이다. 3장은 윗 장을 잇고 아래 장을 일으킨 것이다. 4장과 5장은 버림받은 일을 서술한 것이다. 마지막 장은 전체의 내용을 총결한 것이다.⁴⁰⁾

「衛風·有狐」

- 朱子: 나라가 혼란하여 백성이 흩어져서 그 짝을 잃었는데, 어떤 寡婦가 홀아비를 보고는 그에게 시집가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우가 홀로 걸어가는데 치마가 없음을 근심한다.”고 가탁하여 말한 것이다.⁴¹⁾
- 雪橋: 「有狐」 시는 사람의 마음을 다하면서도 禮에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이

38) 『識聞·詩傳』, pp.685-686, “辭意淫佚, 而音節駘蕩. 桑中上宮淇之上, 三章同一辭, 淫蕩之思, 溢於言外. 而一人而期送三女同在一處耶, 三人而期送三女同在一處耶, 淫亂之俗, 可謂太甚矣. 靜女之次, 有新臺, 下有淫俗而浸漸於上也. 君子偕老之次, 有桑中, 上極淫風而扇熾於下也. 上下相效, 極其爲惡, 雖則華夏而變爲夷狄矣, 物類相感, 宜其召夷狄之禍也. 靜女則爲惡之始, 而尚有所顧憚於上, 故城隅跼蹐, 猶爲欺隱之態. 桑中則上下相扇爲惡, 無所顧憚, 故桑中淇上, 極其放蕩矣.”

39) 『詩集傳』, “此淫婦爲人所棄, 而自敘其事, 以道其悔恨之意也. … 士君子立身一敗而萬事瓦裂者, 何以異此? 可不戒哉!”

40) 『識聞·詩傳』, p.690, “一章二章, 叙邀好之事也. 三章承上起下. 四章五章, 叙其見棄之事也. 末章總結之也.”

41) 『詩集傳』, “國亂民散, 喪其妃耦, 有寡婦見鰥夫, 而欲嫁之. 故託言有狐獨行, 而憂其無裳也.”

다. 禮는 남녀 혼인의 법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종신토록 개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는 흠아비와 과부가 서로 구한 것이니 그 詩語를 붙잡히 여길 만하다. 공자는 이 시를 刪削하지 않았으며 주자 또한 惡을 나무라는 말이 없었다. 先王은 詩와 禮를 천하에 情을 헤아려 처리할 바로 삼았으니 반드시 도가 있었다. 『周禮』에 “남녀 중에 결혼하지 못한 자를 만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 시에 나오는 여인은 진실로 부득이하여 개가한 것이다.⁴²⁾

「衛風·木瓜」

- 朱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찮은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내 마땅히 중한 보물로써 보답을 하고도 오히려 보답했다고 여기지 않음은 다만 그 길이 友好하여 잊지 않고자 해서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녀가 서로 선물하고 답례한 말인 듯하니, 「靜女」와 같은 부류이다.⁴³⁾
- 雪橋: 나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비록 가볍더라도 내가 예물로 보답하는 것을 후하게 하고, 나에게 작은 물건을 주었더라도 나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써 보답하는 것은 진실로 일상적인 사귀의 도이다. 친구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도 불가하지 않을 텐데, 반드시 남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匪報[보답했다라고 여기지 않고]와 永好[길이 우호를 맺자고 한 것]는 사귀는 정이 아주 짙으니 이는 常道를 지나친 것이다.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常道를 지나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게 마련이다. 이 시는 이미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써 보답하면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감정을 쌓고 뜻을 깊이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진 군자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남녀 사이의 일이다.⁴⁴⁾

42) 『識聞·詩傳』, p.692, “有狐詩以盡人情, 而裁正於禮. 禮嚴男女婚嫁之法, 一與之醮, 終身不改. 詩則鰥寡相求, 其辭可矜, 有如此. 而夫子不刪, 朱子亦無譏惡之辭, 先王之以詩禮爲天下其所以酌處者, 必有道矣. 周禮會男女之無夫家者此誠不得已之改也.”

43) 『詩集傳』, “言人有贈我以微物, 我當報之以重寶, 而猶未足以爲報也, 但欲其長以爲好而不忘耳. 疑亦男女相贈答之辭, 如靜女之類.”

44) 『識聞·詩傳』, pp.692-693, “贈禮雖輕, 報禮宜重, 贈我以微物, 我報以重寶, 固交道之常也. 謂之朋友相贈, 未爲不可也, 而必謂疑亦男女之詞者, 何也. 蓋謂匪報永好, 交情太濃, 過於常道也. 凡事過常, 鮮不爲邪. 此詩既報以重寶, 而猶

「王風·采葛」

- 朱子: 絺을 캐는 것은 가는 베와 굵은 베를 만들려는 까닭이니 대개 음분한 자가 이것을 칭탁하고 간 것이다.⁴⁵⁾
- 雪橋: 이 편은 葛藟와 함께 나란히 수록하였으니, 한 때의 풍속에 악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⁴⁶⁾

「王風·大車」

- 朱子: 大夫를 풍자하는 시가 아니라, 대부를 두려워하는 시이다.⁴⁷⁾
- 雪橋: 이 시는 이른바 『논어』의 “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⁴⁸⁾의 뜻이다.⁴⁹⁾

「王風·丘中有麻」

- 朱子: 이 또한 淫奔者의 노래이다.⁵⁰⁾
- 雪橋: ‘麻’와 ‘施施’는 상태로써 함께 말한 것이고, ‘麥’과 ‘食’은 실용으로써 함께 말한 것이고, ‘李’와 ‘玖’는 형색으로써 함께 말한 것이다.⁵¹⁾

「鄭風·將仲子」

- 朱子: 莆田 鄭氏가 말하기를 “이 시는 음분자의 말이다”라고 하였다.⁵²⁾
- 雪橋: 음란한 풍속이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시기에 政과 刑을 펼치고 德과 禮에 힘쓴다면 쉽게 힘을 쓸 수 있다. 만약 이를 지나치

以爲未足, 而有滯情沈意. 非正心君子之事, 必男女之際也.”

- 45) 『詩集傳』, “采葛, 所以爲絺綌, 蓋淫奔者, 託以行也.”
- 46) 『識聞·詩傳』, p.696, “此篇與葛藟既比載, 而可見一時風俗之惡也. ...”
- 47) 『詩序辨說』, “非刺大夫之詩, 乃畏大夫之詩.”
- 48) 『論語』,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 49) 『識聞·詩傳』, p.695, “所謂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者也.”
- 50) 『詩序辨說』, “此亦淫奔者之詞.”
- 51) 『識聞·詩傳』, p.696, “麻與施施, 以狀態而同言之, 麥與食, 以實用而同言之, 李與玖, 以形色而同言之.”
- 52) 『詩集傳』, “莆田鄭氏曰, 此淫奔者之辭.”

게 되면 「褻裳」과 「遵大路」처럼 꺼리는 바가 없게 되어 다스리기 어렵게 될 것이니, 大賢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배우는 자가 克己함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리저리 고려해보면 마음이 즐겁지 않게 되고, 또 비방과 참언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감히 멋대로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善으로 나아갈 희망이 있지만, 이때를 놓친다면 이미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⁵³⁾

「鄭風·叔于田」

- 朱子: 이 시는 아마도 민간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일 것이다.⁵⁴⁾
- 雪橋: 大叔이 의롭지 못하면서도 못사람들의 인심을 얻었으니, 그가 가까이 하는 자들은 모두 流俗의 망령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칭찬받는 것은 ‘飲酒’와 ‘服馬’에 불과할 따름이었고, 한 명의 군자도 그 사이에 함께 하는 자가 없었다. 수많은 망령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바가 어찌 한 선비에게 미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褻貶’이다.⁵⁵⁾

「鄭風·有女同車」

- 朱子: 이는 의심컨대 또한 음분의 시인 듯하다.⁵⁶⁾
- 雪橋: ‘瓊瑤’는 ‘美都’와 서로 호응하여 어울리고, ‘將將’은 ‘德音’과 서로 호응하여 어울린다.⁵⁷⁾

「鄭風·風雨」

- 朱子: 음분한 여자가 이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만나보고는 마음에 기

53) 『識聞·詩傳』, p.696, “淫俗之始也, 故有顧畏之心. 爲民上者, 當此之時, 申政刑而務德禮, 則易爲力也. 若過於此, 而褻裳遵路, 無所忌憚, 則難矣, 非大賢孰能挽回哉. 學者之於克己, 亦如此. 前瞻後顧, 其心不快, 而畏謗憂讒, 不敢肆意者, 尙有遷善之望, 蹉過此時, 則已有無可奈何者矣.”

54) 『詩序辨說』, “此詩恐其民間男女相說之詞耳.”

55) 『識聞·詩傳』, p.697, “大叔不義而得衆, 所親附者, 皆流俗妄庸也. 故其所稱譽者, 不過飲酒服馬而已, 蓋無一君子與於其間矣. 千庸百妄之所艷歎, 豈及一士. 單言之, 褻耶.”

56) 『詩集傳』, “此疑亦淫奔之詩.”

57) 『識聞·詩傳』, p.697, “瓊瑤與美都相襯, 將將與德音相襯.”

빠함을 말한 것이다.⁵⁸⁾

- 雪橋: 漢代 이래로 1,400년간 儒者들은 모두 이 시를 亂世에 君子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하였는데, 朱子께서는 淫奔者의 시라고 단정하였으니 어찌서인가? 그 情이 매우 슬퍼함에 이르렀고 음절의 방탕함과 음란함에 이른 것으로써 알 수 있다. 시는 人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언어의 밖에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月落星微五鼓聲, 春風搖蕩窓前柳’⁵⁹⁾이나 ‘花下重門, 柳邊深巷’⁶⁰⁾의 경우는 그 위아래의 글자를 보지 않아도 淫者의 시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이 되고자 힘쓰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알아야 한다.⁶¹⁾

「鄭風·溱洧」

- 朱子: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다.⁶²⁾
- 雪橋: ‘渙渙’ 두 글자는 淫蕩한 뜻을 映發한 것이다.⁶³⁾

「陳風·澤陂」

- 朱子: 이 시의 뜻은 「月出」과 서로 유사하다.⁶⁴⁾
- 雪橋: 株林은 위에서 淫風이 크게 성행한 것이고, 「澤陂」는 아래에서 淫風이 크게 성행한 것이다. 위아래가 모두 음란하고 방탕하여 禮法을 없애버렸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 길게 탄식한다고 이를 만하다. 이 두 편을 陳風의 끝 부분에 배치한 것이 아무런 의도도 없겠는가!⁶⁵⁾

58) 『詩集傳』, “淫奔之女, 言當此之時, 見其所期之人而心悅也.”

59) 唐 楊巨源, 「大堤曲」의 일부 구절임.

60) 北宋 秦觀, 「水龍吟」의 일부 구절임.

61) 『識聞·詩傳』, pp.697-698, “自漢以來千四百年, 儒者皆以此爲亂世君子之詩, 而先生斷以爲淫奔者之詩, 何哉. 以其情致之悽黯而濃, 至音節之駘蕩而淫泆, 而知之也. 蓋詩者出於人情, 故言語之外, 自有不可掩者. 如月落星微五鼓聲, 春風搖蕩窓前柳, 花下重門, 柳邊深巷, 不待見其上下文字而已, 知其爲淫者之詩. 用力於詩家者, 當自知之.”

62) 『詩集傳』, “此詩, 淫奔者自叙之詞.”

63) 『識聞·詩傳』, pp.697-698, “渙渙二字, 映發淫蕩之意.”

64) 『詩集傳』, “此詩之旨, 與月出相類.”

65) 『識聞·詩傳』, p.709, “株林, 淫風上煽之甚也, 澤陂, 淫風下熾之甚也. 上下皆

이상에서 주자가 음시라고 판정한 30편 가운데, 삼교의 『지문·시전』에서 해석을 진행하였던 14편에 대해 주자와 삼교의 해석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교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淫詩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靜女」, 「桑中」, 「木瓜」, 「采芣」, 「將仲子」, 「風雨」, 「澤陂」 등에서 주자의 음시 주장에 동조하는 해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風雨」에서 삼교는 다음과 같이 주자 淫詩說을 긍정하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였다.

漢代 이래로 1,400년간 儒者들은 모두 이 시를 亂世에 君子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하였는데, 朱子께서는 淫奔者의 시라고 단정하였으니 어째서인가? 그 情이 매우 슬퍼함에 이르렀고 음절이 방탕함과 음란함에 이른 것으로써 알 수 있다.⁶⁶⁾

주자는 그 이전의 학자들이 언급한 대로 「風雨」를 ‘亂世에 君子를 그리워하는 시’⁶⁷⁾라고 보지 않았으며, 淫奔者의 시라고 단정하였다.⁶⁸⁾ 삼교는 주자가 이 시편을 음시로 판정한 이유에 대해 그 情이 매우 슬퍼함에 이르렀고 음절이 방탕함과 음란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주자의 음시 판정의 일반적 논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삼교는 주자의 음시 주장을 따르면서도, 다음 몇 편에서는 삼교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木瓜」에서 주자가 ‘남녀가 서로 선물하고 답례한 말인 듯하다.’⁶⁹⁾라고 한 해석을 따르면서도, 친

淫荒而蕩滅禮法，欲國無亡，得乎。嗚呼，可謂長太息者矣。編此兩詩於陳風之末者，得無意哉。”

66) 『識聞·詩傳』, pp.697-698, “自漢以來千四百年，儒者皆以此爲亂世君子之詩，而先生斷以爲淫奔者之詩，何哉。以其情致之悽黯而濃，至音節之駘蕩而淫佚，而知之也。”

67) 「鄭風·風雨」에 대한 ‘小序’. “風雨，思君子也，亂世則思君子不改其度焉。”

68) 『詩集傳』, “淫奔之女，言當此之時，見其所期之人而心悅也。”

구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였다.⁷⁰⁾ 또 「將仲子」에서는 「褰裳」과 「遵大路」처럼 음란한 풍속이 무르익은 시점이 아닌, 음란한 풍속이 시작된 시점이었기에 話者가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경문의 ‘父母之言, 亦可畏也.’, ‘諸兄之言, 亦可畏也.’, ‘人之多言, 亦可畏也.’에 대한 삼교의 정밀한 분석에 따른 해석이다.⁷¹⁾

또한 음시 시편을 상호 비교하면서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桑中」에 대한 해설에서 “「靜女」는 악을 행하는 시작이었지만 오히려 위에 꺼리는 바가 있었으니 그래서 ‘城隅’와 ‘踟躕’는 속이고 숨기는 것을 나타내었다. 「桑中」은 위아래가 서로 악행을 조장하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桑中’과 ‘淇上’에서 방탕함을 지극히 하였다.”⁷²⁾라고 하여 「桑中」과 「靜女」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또 「采葛」에 대한 해설에서 “이 편은 「葛藟」⁷³⁾와 함께 나란히 수록하였으니, 한 때의 풍속에 악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⁷⁴⁾라고 하여, 「采葛」과 「葛藟」가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을 상호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淫詩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鄭風」과 「陳風」의 상당 수 시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해설을 제시하지 않거나,⁷⁵⁾ 해설을 하

69) 『詩集傳』, “疑亦男女相贈答之辭.”

70) 『識聞·詩傳』, pp.692-693, “贈禮雖輕, 報禮宜重, 贈我以微物, 我報以重寶, 固交道之常也. 謂之朋友相贈, 未爲不可也, 而必謂疑亦男女之詞者, 何也.”

71) 『識聞·詩傳』, p.696, “淫俗之始也, 故有顧畏之心. 爲民上者, 當此之時, 申政刑而務德禮, 則易爲力也. 若過於此, 而褻裳遵路, 無所忌憚, 則難矣, 非大賢孰能挽回哉.”

72) 『識聞·詩傳』, pp.685-686, “靜女則爲惡之始, 而尚有所顧憚於上, 故城隅踟躕, 猶爲欺隱之態. 桑中則上下相扇爲惡, 無所顧憚, 故桑中淇上, 極其放蕩矣.”

73) 朱子는 「葛藟」를 음시로 보지 않았지만, 雪橋는 「葛藟」의 내용이 음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74) 『識聞·詩傳』, p.696, “此篇與葛藟既比載, 而可見一時風俗之惡也.”

75) 雪橋는 淫詩에 해당하는 鄭風의 「遵大路」, 「山有扶蘇」, 「蓺兮」, 「狡童」, 「褻裳」, 「丰」, 「東門之墀」, 「子衿」, 「揚之水」, 「野有蔓草」, 陳風의 「東門之枌」,

더라도 음시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면이 있다.⁷⁶⁾ 또 「有狐」에 대해 음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과부의 부득이한 改嫁이며 주자도 이를 나무라지 않았다고 하는 등 주자의 음시설을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음시 여부에 대한 문제보다는 문장의 수사나 자구의 운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해설을 진행하는 면모도 보이고 있었고,⁷⁷⁾ 淫詩說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方鄭聲’이나 ‘思無邪’에 대해서도 아무런 견해를 제시하지 않기도 하였다.⁷⁸⁾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삼교는 주자의 음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여타 경학자들과 달리 음시 판정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V. 修辭學的方法을 활용한 經文 해설

『識聞·詩傳』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삼교가 진행한 『시경』 해석과 설명 방법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藝學錄』에서 볼 수 있는 문장 분석 방법인 ‘篇章의 수사학’과 ‘字句의 수사학’⁷⁹⁾을 『지문·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정우봉은 『藝學錄』에서 특히 篇章 구성의 수사학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정교화하고 심화하였다고 하면서, “각 작품마다 단락 구성 및 상호 관계

「東門之池」, 「東門之楊」, 「防有鵲巢」, 「月出」에 대해 아무런 해석이나 해설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주자의 음시 30편 가운데 「鄭風」에 15편, 「陳風」에 6편이 있다. 즉 음시의 2/3에 해당하는 시편이 「鄭風」과 「陳風」에 있는 것이다.

76) 「叔于田」, 「有女同車」, 「溱洧」가 이에 해당한다.

77) 「桑中」, 「氓」, 「采芣」, 「有女同車」, 「溱洧」 등이 이에 해당한다.

78) 『識聞·論語』에서도 ‘方鄭聲’과 ‘思無邪’에 대한 삼교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 정우봉, 앞의 논문, 2003, pp.67-77.

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가하였으며, 아울러 意脈, 命脈, 血脈 등의 평어를 통해 작품 구조의 외재적 질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작품 구조의 내재적 질서와 맥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편장 구성의 수사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관심은 시문 작품뿐만 아니라 『대학』, 『논어』, 『중용』, 『시경』, 『서경』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바, 편장 구성의 수사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 읽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여, 『예학록』에서 볼 수 있는 수사학의 특징이 『지문』에도 적용되었음을 밝혔다.⁸⁰⁾

또한 윤지훈은 삼교의 경전 해석의 특징을 ‘篇章 구조의 분석을 통한 맥락 찾기’와 ‘字句 運用의 분석을 통한 수사법 익히기’라고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지문』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제시하였다.⁸¹⁾

요컨대 『지문·시전』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시경』 주해서라고 그 성격을 정리할 수 있겠다. 즉 『지문·시전』은 각 시편에 대한 자신의 創見을 제시하거나, 역대 『시경』 주석가들의 해석에 대한 從違를 제시하거나, 또는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전형적인 시경학 저술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⁸²⁾ 오히려 수사학적 방법을 활용한 經文 해설이 『지문·시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앞의 ‘IV. 詩經論’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러한 수사학적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을 추려내어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 정우봉, 앞의 논문, 2003, p.78.

81) 윤지훈, 「書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pp.354-363.

82) 예를 들면, 역대 시경학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美刺說, 大序의 ‘變風止乎禮義’, 詩序子夏所作說, 思無邪, 放鄭聲, 詩序에 대한 견해 등 시경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굵직한 문제에 대한 삼교의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

83) 김성중은 이러한 성격의 경전 주해서를 ‘文辭的 方面의 주석서’라고 칭하였다.(김성중, 「存齋 魏伯珪의 『論語筭義』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周南·桃夭」 桃夭註所謂華之盛·實之盛·葉之盛者, 蓋與男女以正, 婚姻以時者, 相發暎.
- 「周南·免置」 免置. 肅肅二字爲用力之處.
- 「鄘風·桑中」 靜女之次, 有新臺, 下有淫俗而浸漸於上也. 君子偕老之次, 有桑中, 上極淫風而扇熾於下也.
- 「衛風·淇輿」 衛淇輿註, 德之修飭, 有進無已, 包知行而言也.
- 「衛風·氓」 一章二章, 叙邀好之事也. 三章承上起下. 四章五章, 叙其見棄之事也. 末章總結之也.
- 「王風·采葛」 此篇與葛藟既比載, 而可見一時風俗之惡也.
- 「王風·丘中有麻」 麻與施施, 以狀態而同言之, 麥與食, 以實用而同言之, 李與玖, 以形色而同言之.
- 「鄭風·有女同車」 瓊琚與美都, 相襯, 將將與德音, 相襯.
- 「鄭風·溱洧」 渙渙二字, 暎發淫蕩之意.

이 가운데 「鄘風·桑中」, 「衛風·氓」, 「王風·采葛」 등은 篇章의 수사학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周南·桃夭」, 「周南·免置」, 「衛風·淇輿」, 「王風·丘中有麻」, 「鄭風·有女同車」, 「鄭風·溱洧」 등은 字句의 수사학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문·시전』에서 경문을 해설한 내용 중에 이러한 면모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학 연구자들은 경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철학과 사상을 비롯한 훈고와 고증 방면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전의 문장과 수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역대 경학연구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存齋 魏伯珪(1727~1798)의 『論語笱義』와 『孟子笱義』, 중국의 경우 淸 牛運震(1706~1758)의 『論語隨筆』과 『孟子論文』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교의 『지문·시전』을 비롯한 『지문』의 여러 경서 주해는 ‘수사학적 방법을 활용한 경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경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⁸⁴⁾

요컨대, 『지문·시전』은 수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經文 해설을 진행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학 저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경학사에서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고는 『識聞·詩傳』에 대한 검토를 통해 雪橋 詩經論의 주요 내용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먼저 삼교의 經典과 文章에 대한 인식 및 『지문·시전』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朱子 註 존송과 朱子 淫詩說 긍정 등의 詩經論을 확인하였고, 또 經文 해설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문·시전』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시경』 주해서라고 그 성격을 정리하였다. 아래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삼교는 경전을 중시하여 이를 풀이하고 분석한 『識聞』을 저술하였지만, 경전은 문장을 잘 짓기 위해 필요한 공부의 과정이고 문장을 익히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문·시전』에서 역대 시경학사의 쟁점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보다는 시편의 내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雪橋別集』에 수록되어 있는 『識聞』은 『大學』·『論語』·『中庸』·『詩傳』·『書傳』·『周易』 등의 경서에 대한 삼교의 해석과 견해를 수록한 것이다. 『지문·시전』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國風」이 전체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삼교는 민간 가요라고 할 수 있으면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 내용이 주류인 「國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

84) 이 문단은 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의 필자의 논문 발표에 대한 김성중의 토론문에 언급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로 추정된다. 이 역시 삽교의 문학가 취향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삽교는 『지문·시전』에서 주자 주 외의 다른 주석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주자의 주석 특히 『詩集傳』을 인용하거나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삽교는 주자의 주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朱子の 註를 ‘聖譯’이라고 칭하는 등 그것을 매우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朱子の 淫詩說은 역대 시경학사에서 가장 쟁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淫詩 시편에 대한 삽교의 해설을 살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淫詩說을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鄭風」과 「陳風」의 상당수 시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일부 음시 시편에 대해서는 음시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삽교는 음시 판정의 문제 보다는 시편의 문장 수사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지문·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문·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시경』을 해설하였다는 점이다. 즉 『藝學錄』에서 볼 수 있는 문장 분석 방법인 ‘篇章의 수사학’과 ‘字句의 수사학’을 『지문·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경전 주해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경전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경학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參考 文獻>

- 司馬遷, 『史記』.
毛亨·鄭玄, 『毛詩鄭箋』.
孔穎達 撰, 『毛詩正義』.
朱 熹, 『詩集傳』.
——, 『詩序辨說』.
黎靖德 編, 『朱子語類』.
馬端臨, 『文獻通考』.
安錫傲, 『雪橋集』, 東洋文庫本.
安錫傲, 『雪橋藝學錄』, 東洋文庫本.
——, 『雪橋漫錄』, 東洋文庫本.
——, 『雪橋集』, 아세아문화사, 1986.
——, 『雪橋集』, 『韓國文集叢刊』 23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雪橋別集』, 토우출판사, 2002.
成大中, 『青城雜記』.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3-279,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雪橋 安錫傲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김근태,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28, 태학사, 2004.
김성중, 「存齋 魏伯珪의 『論語笺義』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金剛山 遊記」,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 「삼교 안석경의 문장관과 비평의 실제-牧隱·簡易·谿谷의 散文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18세기 筆記의 一樣相 考察 - 『雪橋漫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삼교예학록』을 통해 본 안석경의 산문 비평과 고문 작법-편장구성과 자구운용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雪橋 安錫傲의 『識聞』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

문교육학회, 2008.

이명학, 『『雪橋漫錄』 연구 : 漢文短篇 作家 및 作家意識에 대한 一考察』,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재훈,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정우봉, 『『삼교예학록』에 나타난 한시비평론』, 『한문교육연구』 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삼교예학록』의 산문 수사학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 「18세기 중반 韓國修辭學史의 한 국면 - 安錫傲의 『삼교예학록』과 『삼교지문』을 중심으로」, 『수사학』 창간호, 한국수사학회, 2004.

何定生, 『詩經今論』, 臺北: 商務印書館, 1968.

程元敏, 『王柏之生平與學術』, 臺北: 學海出版社, 1971.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Sap-kyo(雪橋) Ahn Seok-kyung(安錫徹)'s Study on The Book of Odes(詩經)
and Characteristics in Ahn Seok-kyung's Explanation Methods of The Book of Odes
/ Yang Won S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major contents of Ahn Seok-kyung's study on The Book of Odes and characteristics in Ahn Seok-kyung's explanation methods of The Book of Odes through Ahn Seok-kyung's examination of Ji-moon(識聞) · Shi-zhuan(詩傳).

In the main subject, following study progressed. First of all, Ahn Seok-kyung's recognition of Confucian classic and sentences & composition and contents of Ji-moon(識聞) · Shi-zhuan(詩傳) were summarized. Then, a view, etc. of reverence of Zhu-xi(朱熹)'s notes, affirmation of Yinshishuo(淫詩說) etc. were confirmed.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explanation methods of The Book of Odes, this paper described that Ji-moon(識聞) · Shi-zhuan(詩傳) are manuals written by positively utilizing rhetorical methods.

The largest characteristics that can be found from Ji-moon(識聞) · Shi-zhuan(詩傳) are that those scriptures positively utilized rhetorical methodologies. There can be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onfucian classic in that new study methods on Confucian classic were used.

【Key words】 Sap-kyo(雪橋), Ahn Seok-kyung(安錫徹), Ji-moon(識聞), The Book of Odes(詩經), Study on The Book of Odes(詩經), Rhetorical methodologies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Research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in Dankook Univ. / yang1st@empas.com